

2025년
8월

최신 해외연구정보 동향

KOICA ODA연구·교육원

The Potential Impact of Reductions in International Donor Funding on Tuberculosis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Modelling Study

공여기관 자금 감축이 저·중소득국가 내 결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모델링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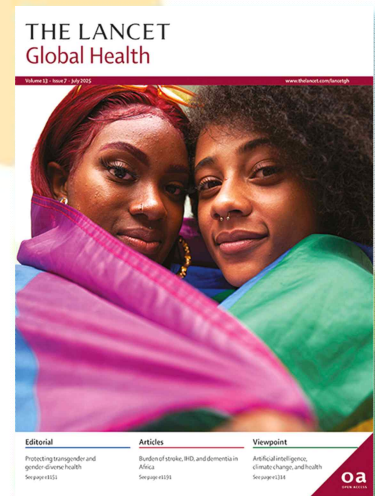
많은 국가 내 결핵 사업은 공여기관의 원조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해체되었고 타 국가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축소를 발표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 감축이 결핵 부담에 미치는 역학적 관점에서의 잠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결과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결핵 발생의 91%, 결핵 사망의 90%를 차지하는 79개 국가 대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USAID 자금 중단만으로도 2035년까지 140만 명의 결핵환자(95% 불확실성 구간: 110만~170만 명) 및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53만 7,700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이 최근 발표한 원조 삭감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추가 발생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함의

국제원조자금의 축소는 결핵 발병률 및 사망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핵의 예방, 진단, 치료 서비스의 공백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공여 기관들의 재정 확대 지원이 필수적이다.



- 기관/학술지명: The Lancet Global Health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5. 7. (Online first)
- 저 자: Rebecca A Clark et al.
- 주 제: 보건
- 키 워 드: Tuberculosis, Reduction of funding,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USAID
- 출 처: <https://shorturl.at/vAXJN>

Ranking Our Future: University Students' Priorit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ir Connection to Nature

우리의 미래에 순위 매기기: 독일 대학생들이 부여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우선순위와 환경과의 연계성 탐색

대학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소다. 오늘날의 학생들이 미래에는 전문가가 되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SDG 달성을 위해 향후 학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전공에 따라 각 SD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자연과의 유대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18개의 학과(n=1,920)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1) 자연과의 유대감뿐만 아니라 각 SDG의 중요도 모두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DG2 -기아 종식 제외) (2) 일부 SDG는 특정 전공에서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나, 독일 대학생 사이에서는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DG2(기아 종식)와 SDG6(깨끗한 물과 위생)은 높게 평가된 반면,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SDG9(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SDG10(불평등 감소), SDG17(글로벌 파트너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3) SDG15(육상 생태계 보호)는 자연과의 유대감과 상관관계를 보여 환경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SDG15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4)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SDG에 대해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대학은 이를 모든 전공 교육 과정에 지속가능개발 관련 교육 확대·통합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관/학술지명: Sustainable Development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5. 6. (Volume33, Issue3)
- 저 자: Viktoria Feucht et al.
- 주 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키 워 드: Connection to nature, SDG15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igher education, SDGs
- 출 처: <https://doi.org/10.1002/sd.3278>

Examining New Donors in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내 신흥공여국에 대한 검토

신흥공여국은 기존의 국제 원조 체제에 어떻게 통합되는가? 기존 연구들은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신흥공여국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들 가운데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신흥공여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DAC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핵심 기준을 수립하는 기구로, 이들 신흥공여국들이 기존 국제 원조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다.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DAC이 제시한 기준과 모범사례에 대해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이행(compliance) 수준을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 신흥공여국들은 DAC의 통계 보고 요건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더 잘 충족하는 반면, 전통공여국들은 글로벌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지출을 더 충실히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DAC 사무국은 회원국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신흥공여국의 경우, 통계 기준(statistical standards) 수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는 타 DAC 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된다. 반면, 전통공여국의 경우에는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기준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신규 DAC 회원국의 제도적 통합을 촉진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정책 마커 시스템(Policy Marker System)에 주목한다. 이 시스템은 국제기구 주도의 모니터링 체계로서, 통계 기준 준수와 동시에 실제 원조 집행 과정에서의 정책적 모범사례 도입을 모두 요구한다. 분석 결과, 신흥공여국은 절차적 통계 보고 요건을 비교적 더 잘 이행하는 반면, 전통공여국들은 특정 정책 분야에 원조를 집중하라는 DAC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이후 DAC에 가입한 한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와 같은 신흥 공여국을 "신규"로 분류함 (본문 2p.).



- 기관/학술지명: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문서종류: Special Issue Article
- 발행연월: 2025. 7. (Online first)
- 저 자: Nicolas Bau et al.
- 주 제: 이행수단 강화
- 키워드: New donors, OECD DAC, SDGs, DAC standards, Policy marker
- 출처: <https://doi.org/10.1002/jid.70000>

Trade Credit, Labor Employment, and Demand for Skill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Vietname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기업 간 신용거래, 노동 고용, 그리고 기술 수요: 베트남 중소기업 대상 실증 조사

이 논문은 기업 간 신용거래(trade credit*)가 노동 수요, 특히 수요 내 숙련·비숙련 인력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해당 분석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민간 제조업 중소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공급업체(suppliers)로부터 기업 간 신용거래(즉, 외상거래)를 제공받은 중소기업일수록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 또한 신용거래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은 숙련 노동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매개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용거래 제도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기업 간 신용거래(trade credit): 기업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기업과 외상으로 제품과 용역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신용거래
(출처: 강동수·윤택,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 KDI, 2003.)



● 기관/학술지명: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5. 5. (Volume29, Issue2)
- 저 자: Thang Ngoc Bach, Thanh Le
- 주 제: 경제/산업
- 키 워 드: Credit constraints, SMEs, Labor market decision, Trade credit
- 출 처: <https://doi.org/10.1111/rode.13147>